

# 코로나19 여파... 기능성식품에 '주목'

### K-FOOD 수출 확대 위한 '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 본격 활동 돌입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삼, 갯잎과 같은 기능성 K-FOOD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이 22일 킷오프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계 건강식품 시장규모는 2020년 약 1,600억 달러를 향해 급속히 성장 중이며, 국내 시장규모도 2018년 기준 2조5천억 원을 넘었다.

따라서 수출을 위한 국내 공급물량 기반은 충분히 갖췄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각국이 요구하는 기능성표시제도 등록절차나 이를 수출에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다소 미흡했다.

이번에 구성된 수출지원단은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aT 등



인삼, 갯잎과 같은 기능성 K-FOOD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이 22일 킷오프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우리 농식품의 기능성을 입증할 관련정책, R&D,

임상시험, 해외공동연구 등 각 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살려 활동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aT는 국내 연구기관이 발굴한 우수한 기능성 소재들을 대상으로 수출지원단을 총괄하고, 16개 해외지사를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기능성식품 등록절차, 시장동향, 제도변화 등 관련정보 제공과 해외시장 특화마케팅을 담당한다.

아울러 성분별 선행연구 리뷰(Systematic Review, SR)를 통해 질병예방 등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행연구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매칭에도 나설 예정이다.

수출지원단은 우선 기능성식품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인삼의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의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한국의 기능성식품의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하세요"

### 농어촌공 전북본부, 연중 접수 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이농, 고령화 등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위탁 받아, 농지은행포털사이트 공고절차를 통해 임대를 지원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지(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임대수탁 위탁자는 8년 이상 위탁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농지처분시 양도소득 증과세 10% 절감(증과세율이 아닌 일반과

세 적용)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돼 비지정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세~74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 외에 75세까지 m당 매도 330원/임대 250원의 경영이양지원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to.or.kr)에서도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 국가공간정보사업 성공 추진 지원

### LX, 국토연구원과 협약...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국토연구원과 손잡고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한다.

LX는 22일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국가공간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표준적용 활성화, 중복투자 방지 등 공간정보사업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력이 양 기관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만큼 국가공간정보사업의 '표준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LX는 앞으로도 공간정보 국가표준화 정책 지원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과 '표준지원기관'으로 지정돼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주김제완주축협은 22일 완주군 화산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썩고대 및 장판교체, 입구계단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가졌다.

## 전북농협, 완주 화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22일 완주군 화산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썩고대 및 장판교체, 입구계단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및 임직원, 전북농협 김영일 부분부장, 전주완주시군지부 홍종기 지부장, 김양우 축산사업단장, 여기현 화산면장 등이 참석해 나눔축산운동의 뜻을 함께 실천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이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축산부문에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후원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도움을 받은 독거노인 이모씨는 "집이 낡고 더러웠는데 썩고대와 장판을 바꿔주고 입구계단 보수를 하니 새집이 된 것 같다"며 나눔축산운동에 고마움을 전했다.

(사)나눔축산운동본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1% 기부·나눔활동, 소외계층 봉사·후원활동, 경증농가 생생협력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 소비자 상호이해 증진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지하수 오염 예측 가능

### 농진청, 토양 중 잔류농약 수직이동성 평가모델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토양 중 잔류농약의 수직이동성 평가모델(PESTIN)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양 등 환경에 남은 농약은 지하수나 하천수 등 생태계에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동성 평가모델로 예측 후 사전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선진국에서 개발한 이동성 평가모델이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환경이 달라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높아 한국형 농약 이동성 평가모델의 개발이 필요했다.

이번에 개발한 한국형 농약 수직이동성 평가모델은 잔류농약이 농경지 토양을 통과해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농약의 이동뿐만 아니라 분해까지 예측 가능하며 농약의 물리적·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강우, 토성, 증발 등 다양한 농업환경 요인을 고려해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모델은 Hydrus-1D(미국), PEARL(네덜란드), VLEACH(미국 EPA) 등 기존 모델보다 고도화된 라그랑지안-윌러리안 방식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매우 우수

하다. 이 평가모델의 핵심 알고리즘은 특허등록이 완료됐으며, 저명한 국제 학술지 Journal of Hydrology (IF 4.405) 579호에 논문으로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농진청은 모델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공문 또는 전자우편(sw.park@korea.kr)으로 신청하면 모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모델을 활용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약 안전관리 연구자와 정책기관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달순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장은 "이번 농약 수직이동성 평가모델은 국내 최초로 개발돼 선진국 수준으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농업지역 지하수 오염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